

충만국

‘미니북’

—국어 전 영역 필수 암기 자료집—

www.chongmangug.co.kr

목차

- *필수 암기 개념-----1
- *비문학 팁-----61
- *선지의 법칙 -----63
- *중요 배경 지식-----71
- *고사성어-----73
- *고전문학 해석-----79

특장점

- *기출 개념 중, 필수 암기 자료
- *정답과 오답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배경지식
- *실전 시험 직전에, 극강 활용성 (가성비 최고!)

1. 원인 vs 이유

ㄱ.원인: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ㄴ.이유: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르는 까닭이나 근거.

어젯밤 게임하느라 밤샘다(원인)→늦잠을 잤다(이유)→학교에 지각을 했다(결과)

2. 사례 vs 예시

ㄱ.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ㄴ.예시: 예를 들어 보임.

과일에는 사과, 배 등이 있죠.(예시) / 작년에 체육대회에서 우승한 3반이~(사례)

3. 직접 인용 vs 간접 인용

ㄱ.직접 인용: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ㄴ.간접 인용: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

“집에 갈거야”라고 말했다(직접 인용) / 집에 간다고 말했다(간접 인용)

4. 비난 vs 비판

ㄱ.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ㄴ.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잘못의 원인 혹은 대안을 말함
🗨️(긍정적)

멍청한 놈들!(비난) / 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 서로 화해하는 것이 좋겠다.(비판)

5. 토의 vs 토론

ㄱ.토론: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확실한 대립점이 있는 논제

ㄴ.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협력적 논의이다.

교복, 꼭 입어야 하는가?(토론) / 단합대회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토의)

6. 객관적 vs 주관적

ㄱ.객관적: 누가 보아도 있는 그대로의 동일한 사실.

ㄴ.주관적: 개인의 생각, 감정 등이 반영.

꽃이 붉다(객관적) / 꽃이 아름답다(주관적)

7. 평가 기준

- ㄱ. 타당성: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합리적, 상식적)
- ㄴ. 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ㄷ. 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ㄹ. 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ㅁ.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8. 구체적 vs 추상적

- ㄱ.구체적: 눈에 보이는 대상물. (학교, 연필, 구름...)
- ㄴ.추상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평화, 기쁨, 사랑...)

9. 질문의 유형

- ㄱ.상대에게 정보 요구 (평저 구조가 무엇인가요?)
- ㄴ.자신의 이해여부 확인 (우리에게 적합한 구조라는 거죠?)
- ㄷ.상대의 이해여부를 확인 (회토류에 대해 이해되었나요?)
- ㄹ.상대의 배경지식 확인 (어떤 원리인지 알고 있나요?)
- ㅁ.상대의 호기심 유발 (결과가 궁금하시죠?)

10. 역설(逆說) vs 역설(力說)

ㄱ.역설(逆說):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

ㄴ.역설(力說):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逆說) / 그는 통일의 필요성을 力說한다.

11. 전개 방식

- 1)정태적: 정의, 예시, 분류·구분, 비교·대조, 분석, 비유
- 2)동태적: 서사, 과정, 인과
- 3)배열: 시간적, 공간적, 열거식, 점층적
- 4)설명, 논증, 묘사, 서사

12. 언어 vs 반언어 vs 비언어

ㄱ.언어적 표현: 문자 혹은 음성 언어

ㄴ.반어적 표현: 억양, 고저, 어조, 속도 등

ㄷ.비언어적 표현: 손짓, 몸짓, 표정, 옷차림 등

13. 대화 vs 발화 vs 생각

- ㄱ.대화: 두 사람이 이상이 말을 주고 받음. 큰 따옴표 사용.
- ㄴ.발화: 의미를 가진 문장을 말하는 것. 큰 따옴표 사용.
- ㄷ.생각: 말하지 않은 속 마음, 작은 따옴표 사용.

14. 분석 vs 구분 vs 분류

- ㄱ.분석: 대상을 개별 요소나 성질로 쪼갬.
- ㄴ.구분: 상위 대상을 하위 대상(종류)으로 나눔.
- ㄷ.분류: 하위 대상(종류)을 상위 대상으로 묶음.

곤충을 머리, 가슴, 배로 분석 / 과일을 사과, 배, 감으로 나눔
사과, 배, 감 등은 과일로 묶음

15. 관심을 끌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경우

- (화자 혹은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함.
- (청자 혹은 독자)가 쉽게 경험했을 법한 일을 말함.
- (화자 혹은 필자)가 <묻고+답하기> 표현법을 사용함.

- ▶ ‘추이’, ‘서사성’, ‘추보식’ 모두 시간의 흐름과 관련됨.
- ▶ 글의 <목적, 의도, 취지> 등은 주로 지문 초반에 있어 해당 부분을 우선순위로 신속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취지**: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
- ***목적**: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 ***의의**: 어떤 사실이나 행위 따위가 갖는 중요성이나 가치.

16. 대화의 원리 중 <공손성>

- 1)**요령**-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도움이 나 이익이 되는 말
- 2)**관용**-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보다는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
- 3)**겸양**-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
- 4)**찬동**-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
- 5)**동의**-상대화 의견이 다른점을 최소화하고 일치하는 점을 최대화

17. 어간 vs 어미

ㄱ.어간: 용언(동사, 형용사)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

ㄴ.어미: 용언(동사, 형용사) 활용 시 변하는 부분

18. 어간 vs 어근

ㄱ.어간: 용언의 활용형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ㄴ.어근: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 어간이 어근도 될 수 있으나 모든 어근이 어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먹+다, 먹+고, 먹+으니...→(‘먹-’은 어간, ‘-다, ‘-고’ ,‘-으니’는 어미)

☞(‘먹-’은 어근으로도 볼 수 있음)

*덜+개, 어른+스렵다...→(‘덜’, ‘어른’은 어근)

19. 표음주의 VS 표의주의

ㄱ.표음주의: 원형 무시, 발음대로 적기. (하느+를)-중세 국어

ㄴ.표의주의: 원형 준수, 맞춤법대로 적기. (하늘+을)-현대 국어

20. 접속조사 vs 연결어미

ㄱ.접속조사: 주로 체언을 연결 (철수와 영수)

ㄴ.연결어미: 서술어가 포함된 2개의 문장 단위를 연결

(집에 가서 쉬어라)

21. 실질적 의미 vs 형식적 의미

ㄱ.실질적 의미: 어근, 어간

ㄴ.형식적 의미: 조사, 접사, 어미

22. 동화 vs 축약

ㄱ.동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닮는 것.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ㅣ’모음역행동화...)

ㄴ.축약: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만나 두 개의 성질을 공유
한 새 음운 탄생.

☞ 자음 축약에는 반드시 ‘ㅎ’이 필요하다.

(잃지→[일치], 만형→[마텅])

23. 명사 파생 접사 ‘-이’ vs 부사 파생 접사 ‘-이’

ㄱ. 명사 파생 접사: 조사와 결합. (높이를 재자)

ㄴ. 부사 파생 접사: 서술어를 수식. (높이 날다)

24. 지칭어 vs 호칭어

ㄱ. 지칭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 (남편, 아내)

ㄴ. 호칭어: 어떤 대상을 부르는 말 (여보)

☞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만 지칭어와 호칭어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많음.

25. 접속 부사 vs 접속 조사

ㄱ. 접속 부사: 문장을 이어줌.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

ㄴ. 접속 조사: 단어를 이어줌. (와/과, 하고, 이며, 이랑)

26. 규칙 활용 vs 불규칙 활용

ㄱ. 규칙 활용: 변하지 않는 ‘어간’을 기본으로 활용함.

(입다→읽고, 읽어서, 읽어라) (잡다→잡고, 잡아서, 잡아라)

ㄴ. 불규칙 활용: ‘어간’의 기본 형태가 달라짐.

(돕다→뒹고, 도와서, 도와라) (듣다→듣고, 들어서, 들어라)

27. 양성모음 vs 음성모음

ㄱ. 양성모음: ㅏ, ㅑ 계열 (‘ㅏ’, ‘ㅑ’, ‘ㅗ’, ‘ㅛ’, ‘ㅓ’, ‘ㅕ’, ‘ㅗ’, ‘ㅛ’, ‘ㅓ’)

ㄴ. 음성모음: ㅜ, ㅡ 계열 (‘ㅜ’, ‘ㅠ’, ‘ㅜ’, ‘ㅠ’, ‘ㅡ’, ‘ㅞ’, ‘ㅟ’, ‘ㅟ’, ‘ㅞ’)

28. 초성 ‘ㅇ’ vs 종성 ‘ㅇ’

ㄱ. 초성의 ‘ㅇ’: 자음이 아님, 의미 없는 기호 표시.

→(음운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ㄴ. 종성의 ‘ㅇ’: 자음에 해당

29. 본 용언 vs 보조 용언

ㄱ.본 용언: 자립성 있고 단어로 인정.→(동사, 형용사 일체)

ㄴ.보조 용언: 자립성 없고 본용언에 의미를 더함.

*사과를 먹어(본용언) 보자(보조 용언). →사과를 먹자(○), 사과를 보자(×)

*돈을 꺼내(본 용언) 주어라(본 용언). →돈을 꺼내라(○), 돈을 주어라(○)

30. 접속 조사 ‘와(과)’ vs 부사격 조사 ‘와(과)’

ㄱ. 접속 조사: 체언 연결. (철수와 영수는 친구이다.)

ㄴ. 부사격 조사: 용언 수식. (철수는 영수와 닮았다.)

31. 은/는 vs 이/가

ㄱ.은/는: 보조사 →‘은/는’이 붙는 말이 주어로 많이 쓰임.

ㄴ.이/가: 주격조사→‘이/가’가 붙는 말은 주어로만 쓰임.

*철수는(주어) 학교에 간다.

*철수가(주어) 사과를(목적어) 먹는다.

32. 피동 vs 사동

ㄱ.피동: 주체가 일을 당함 (문이 닫힌다)

ㄴ.사동: 주체가 일을 시킴 (철수가 문을 닫게 한다.)

☞ 이중피동은 무조건 불가. 이중사동은 허용 가능.

1) 그는 그녀를 울렸다.(○) →사동표현: [울+ 리(사동)+ 었+ 다]

2) 그는 그녀를 울게 하였다.(○) →사동표현: [울+ 게 하(사동)+ 었+ 다]

3) 그는 그녀를 울리게 하였다.(×) →불필요한 이중사동

4) 그는 그녀를 재우다.(○) →이중사동 허용: [자+ 이(사동)+ 우(사동)+ 다]

5) 그는 그녀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게 하다.

→이중사동 허용: [먹+ 이(사동)+ 게 하(사동)+ 다]

☞ 3)이 불필요한 이중사동인 이유는 1)과 2)와 같이 사동표현 하나만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3. 품사 vs 문장 성분

ㄱ.품사: 낱말의 개별 성질.

ㄴ.문장 성분: 문장에서의 역할.

*나는 학교에 갔다

→나(대명사)+ 는(조사) 학교(명사)+ 에(조사) 갔다(동사)

☞ 나는(주어)+ 학교에(부사어)+ 갔다(서술어)

비문학 팁

끝문단이 중요하다1

(견해, 관점, 관점 등)

☞ 끝문단은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 요약, 강조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인물이 행한 가치 있는 일이 요약된) 견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비문학에서 주제와 긴밀한 것은 물론 인물의 업적 및 견해, 글쓴이의 생각, 관점, 강조 사항, 당부, 가치관, 입장 등과 관련된 것을 물으면 이번 문제처럼 정답의 핵심 근거는 지문의 끝문단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다음 문제들은 정답의 근거가 모두 끝문단에 있다!

-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수능 24번)
- *~키르히호프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14 수능 16번)
-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 수능 22번)
-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가장 적절한 것은? (2011 9월 평가원 20번)
-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8 9월 평가원 44번)
-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5 9월 평가원 45번)
- *글쓴이가 다룬 핵심 문제로 알맞은 것은? (2005 수능 24번)
- *윗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0 수능 45번)

비문학 팁

끝문단이 중요하다2

(내용 전개)

☞ 지문의 끝 문단은 처음-중간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 글의 전개 방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 지문 전체를 검토할 수 없을 때, 혹은 지문을 모두 검토해도 정답의 근거가 잘 안 보일 때 끝 문단에서 특히나 첫 문장 혹은 끝 문장에 주목하라! 이 부분과 대응성이 높은 선지가 내용 전개 문제의 답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2016 수능A 22번) 전개방식 문제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끝문단 끝문장]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답☆)

(2016 수능B 21번) 전개방식 문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끝문단 끝문장]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정답☆)

선지의 법칙 1

★일탈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특정한 기준으로 선지의 핵심을 분류했을 때 나머지와 다른 한 개의 선지가 눈에 띄면 이를 일탈 선지라 칭하고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약 80%이다. ☞(주로 선지의 핵심을 긍정-부정으로 구분)

2016 수능 A

- ① (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기반이 굳건하고 기원이 유구하다는 뜻을 내세워 왕조를 송축하는 표현이겠군. ☞(긍정적)
- ② (가)에서 ‘경천근민’의 덕목을 부각하여 왕에 대해 권제한 것은 ‘대부’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군. ☞(긍정적)에 가까움
- ③ (나)에서 ‘한가’하게 ‘소일’하는 개인적 삶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표현한 데서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군. ☞(긍정적)에 가까움
- ④ (나)에서 ‘강파, 바람’등의 자연물과 ‘소정, 그물’등의 인공물의 대립은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부정적) (☆정답)
- ⑤ (가)의 ‘한강 복讖’은 새 왕조의 터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나)의 ‘강호’는 개인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겠군. ☞(긍정적)

⇒④만이 나머지와는 다르게 부정적 이미지로 ④는 일탈 선지이며 지문과 발문에 상관없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이다.

기출 고사 성어

- 초록동색(草綠同色):** 같은 처지의 사람과 어울림.
- 사필귀정(事必歸正):** 결국 모든 일은 바른 결과로 돌아감.
- 상전벽해(桑田碧海):** 세상의 모든 일이 엄청나게 변함.
- 새옹지마(塞翁之馬):** 인생의 길흉화복은 늘 변화가 많음.
- 전화위복(轉禍爲福):**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행복으로 바뀌어 놓을 수 있음.
- 가렴주구(苛斂誅求):**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재물을 억지로 뺏음.
- 환골탈태(換骨奪胎):** 외모가 아름다워 댄 사람처럼 됨.
- 자중지란(自中之亂):** 같은 패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 부화뇌동(附和雷同):** 소신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감.
- 자승자박(自繩自縛):** 자기의 언행으로 자신이 꼼짝 못하게 됨.
- 고립무원(孤立無援):** 고립되어 도움을 받을 데가 없음.
- 암중모색(暗中摸索):** 어림짐작으로 사물을 알아내려 함.
- 점입가경(漸入佳境):** 일이 점점 더 흥미롭게 돌아감.
- 구우일모(九牛一毛):** 대단히 많은 것 중의 아주 적은 것
- 능소능대(能小能大):** 임기응변으로 일을 잘 처리 함.
- 침소봉대(針小棒大):**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하여 말함.
- 탁상공론(卓上空論):**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을 일컬음.
- 마이동풍(馬耳東風):**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아니함.
- 함구무언(緘口無言):** 입을 다물고 아무런 말이 없음.
- 조변석개(朝變夕改):** 계획이나 결정을 자주 바꿈
- 청출어람(靑出於藍):**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
- 고진감래(苦盡甘來):**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전화위복(轉禍爲福):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
고식지계(姑息之計): 일시적인 방편
천재일우(千載一遇): 좀처럼 얻기 어려운 좋은 기회
백년하청(百年河淸): 오랫동안 기다려도 이루어질 수 없음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앎.
설상가상(雪上加霜): 어려운 일이 겹침을 이름
일장춘몽(一場春夢): 인생의 허무함
결초보은(結草報恩):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함
흥진비래(興盡悲來): 즐거운 일이 지나가면 슬픈 일이 옴.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
안빈낙도(安貧樂道):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즐겁게 살아감
호가호위(狐假虎威): 남의 세력을 빌려 위세를 부림
면종복배(面從腹背): 겉으로는 순종, 속으로는 딴 배신.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옴.
천양지차(天壤之差): 하늘과 땅 사이만큼 엄청난 차이
각골지통(刻骨之痛): 뼈를 깎는 아픔
진퇴유곡(進退維谷):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가거나 물러서지 못함.
절차탁마(切磋琢磨):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음
전인미답(全人未踏): 지금까지 아무도 손을 대거나 발을 디딘 일이 없음.
호구지책(糊口之策):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책
후안무치(厚顏無恥): 뻔뻔스러워 부끄러워 할 줄을 모름
무위도식(無爲徒食): 하는 일 없이 헛되이 먹기만 함
풍찬노숙(風餐露宿): 떠돌아다니며 고생스러운 생활을 함
망양지탄(亡羊之歎): 방침이 많아 할 바를 모르게 됨

연목구어(緣木求魚):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함

오불관언(吾不關焉):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고 모른 채함

삼고초려(三顧草廬): 훌륭한 인물을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유구무언(有口無言): 잘못이 분명해 변명하거나 해명할 길이 없음

지გი지우(知己之友):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근묵자흑(近墨者黑):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순망치한(脣亡齒寒):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설왕설래(說往說來): 의견이나 입장이 달라 말로 옥신각신함.

기호지세(騎虎之勢): 이미 시작한 일이라 도중에 그만둘 수 없음.

고립무원(孤立無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로이 서 있음

혈혈단신(孑孓單身):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홀몸

사고무친(四顧無親): 의지할만한 사람이 도무지 없다는 뜻

진퇴유곡(進退維谷): 궁지에 빠진 상태

토사구팽(兔死狗烹):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목적에 이용된 도구나 사람은 무용하게 되어 배척됨.

목불인견(目不忍見):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거나 안타까운 모습

감탄고토(甘呑苦吐):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맞지 않으면 싫어한다는 의미

식자우환(識字憂患): 너무 많이 알기에 쓸데없는 걱정도 그만큼 많다는 뜻

★활용법★

고전 해석은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과 현대 어 풀이를 반복적으로 번갈아 보면서 고전어가 눈에 익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세한 단어의 의미보다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세요. 실전 시험에서 전체 내용 중 70%만 파악해도 문제 푸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016 수능 <용비어천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뭉새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가 일어 바다에 가나니

천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녘에 누인개국(累仁開國)하시어 복년(卜年)*이 가없으시니

성신(聖神)*이 이으셔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셔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임금하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 가 있어 조상만 믿겠습니까*

*복년: 하늘이 주신 왕조의 운수.

*성신: 훌륭한 임금의 자손.

*낙수에~믿겠습니까: 중국 하나라의 태강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을 갔다가 폐위당한 일을 가리킴.

현대어 풀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냇물을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천 년 전에 미리 정해 놓은 한양에 나라를 세워도 복이 끝이 없으니

*후대 왕이 이어 나가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섬겨야 더욱 굳건해지리라

*임금이시여 아소서 (나라는 돌보지 않고) 낙수에 사냥을 가서 조상의 공덕만 믿으시겠습니까?

2017 수능 <연행가>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이편저편 화류교의(樺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창종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덤뻑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현대어 풀이

만권이나 될 정도로 많은 책을 탁자 위에 쌓아 놓고
자명종(시계)과 자명악(악기)은 저절로 소리가 나며
좌우로 당전(양탄자), 담방석, 백전요(이불) 등을 깔아 놓은 곳에
청나라와 조선 양측이 의자에 서로 마주 걸터앉고
청나라 사람들이 인사로 차를 갖다 준다

차를 잔에 가득 부어 권하는데
푸르고 노란 빛의 향기가 가득한데
서로 언어가 달라서
말 한마디 못하고 덤덤히 앉아 있으니
귀머거리 병어리인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글은 같아 글로 말을 하고자 한다
벼루의 먹에 붓을 찍어
종이로 글을 써서 전달을 하니
대화를 주고받으니
서로 한 마음이었다.

2016 수능 <강호사시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하옵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옵도 역군은이샀다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떡위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옵도 역군은이샀다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샷샷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옵도 역군은이샀다

현대어 풀이

강호에 봄이 오니 절로 흥이 돋는구나.
막걸리 냇가에 앉아 먹는데 금린어(쏘가리) 안주 삼고
이 몸이 한가히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구나

강호에 여름이 오니 초당에 일이 없다.
미더운 강의 파도는 바람을 보내나니
이 몸이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구나

강호에 가을이 오니 고기마다 살이 오르는구나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띄워 던져놓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구나

강호에 겨울이 오니 눈 깊이가 한 자가 넘구나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지어
이 몸이 춥지 않음도 역시 임금의 은혜구나